

##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정민자  
가정관리학과

### 〈요 약〉

본 논고는 현대 가족 연구의 이론들 중에서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가족체계모형을 검토해 보고 체계이론화를 시도한 것이다. 먼저 지적 기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일반체계이론의 개념과 속성이 가족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던 각 분야에서의 가족현상을 연구한 Bowen, Minuchin, Olson, Kantor & Lehr, L. Constantine의 모델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현재 가족연구에 응용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미래 연구를 위해 가족체계론의 공헌과 평가를 해 봄으로써 현대 가족 연구의 이론화에 기여를 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문제해결, 가족복지 분야 등에서는 전체론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체계이론을 응용함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고 본다.

---

## The General System Approach to the Family Study

Jeoung, Min Ja  
Dept. of Home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heorize family system approach. For family system theory, the origin of general system as well as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it was referred to and applied to the family. Family system researchers such as Bowen, Minuchin, Olson, Kantor & Lehr and Costantine have studied family system model in manifold science.

So their theories were mentioned briefly. Also the family study result applied to family system approach were commented in mate-selection, parents-child

relationships, family violence and family counseling and therapy. Through this analysis, it is expected that family system theory is attractive for various areas of family phenomena. Especially family problem solving, family counseling and family welfare fields will be useful applying this study.

## I. 연구의 목적

〈가족〉에 대한 관심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지만, 가족의 현상과 문제점 가족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서울올림픽학술회의, 1988)<sup>1)</sup>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Burr(1980) 등은 가족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으로 정교화되어 가고 있으며<sup>2)</sup>, 특히 70~80년대에는 가족에 대한 연구가 질적·양적으로 축적되어 이제는 “가족학(Famology)”이라는 새로운 독립된 학문이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은, 1986)<sup>3)</sup> 이러한 가족연구에 대한 분석의 틀은 1960년대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구조기능론, 상황적 모델, 제도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이 주로 사용되었으며(Hill과 Hansen, 1960) 1970년대에 와서는, Nye와 Berardo(1981)의 분류에 의한다면 이외에도 문화인류학적 접근, 정신분석학적 접근, 사회심리적 접근, 경제적 접근, 법적 접근, 역사적 접근 등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sup>4)</sup> Klein, Schvaneveldt와 Miller(1977) 등은 100명의 가족학자에게 그들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에 대해 논의해 본 결과 많은 연구 분석들중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구조-기능론적 접근, 발달론적 접근외에 사회교환론적 접근과 체계론적 접근이 그들 연구분야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으며 중요하다고 보았다.<sup>5)</sup> (Duvall과 Miller, 1985). 또한 Burr와 Hill(1979) 등은 현대가족의 연구 결과를 사회교환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갈등이론, 현상학이론에 입각하여 이론화 하였다.<sup>5)</sup> 학문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화작업은 필수적인데, 본 논고는 위의 여러 관점중에서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일반체계이론이 가족연구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가족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개괄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이론들마다의 장단점이 있으나 그에 대한 논평보다는 일반체계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가족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의 틀에 대한 제공과 가족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갖고자 한다. 이에 본 논고의 전개는 일반체계이론의 지적 기

1) 서울올림픽학술회의, 후기산업사회의 공동체, 제1권 「가족」편, (서울 우석출판사, 1989)

2) Burr and Hill,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New York: The Free Press, 1979), Vol II, pp. 112-129.

3) 조은,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 사회학」, 제20(여름호, 1986), pp. 103-115.

4) F Ivan Nye and Felix M. Berardo,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1)

5) E Mills Duvall and Brent C. Miller,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Inc., 1985), pp. 14-16.

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가족학연구에 사용된 가족체계론가들의 기본적인 연구관점과, 체계의 특성, 가족체계의 모델과 응용, 그에 대한 공헌 및 평가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지적 기원

“체계(System)”의 어휘는 희랍어의 ‘systema’에서 유래되었는데, 이것은 ‘여러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 즉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복잡한 기능체(A set of interrelated part forming a complex but unitary whole)를 의미한 개념이다.<sup>6)</sup> 그러나 시스템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생물학자인 베르탈란피(Ludwig von Bertalanffy)가 여러 학문의 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고와 연구의 틀을 찾으려는 노력끝에 발표한 이론이다. 베르탈란피는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문화가 발달할수록 여러 학문분야간의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학문간의 사고방식 연구초점과 방법 등이 점점 달라져 학문간의 대화와 상호간의 이해, 교류가 점점 어려워짐을 느꼈다. 그리하여 생물학·물리학·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을 통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시스템이론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sup>7)</sup> 여러 학문 분야를 통합하는 이론체계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에 여러 학문분야로 확산되어 갔으며 특히 경제학자인 보울딩(Kenneth Boulding)이 시스템이론의 목적과 골격을 작성하여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으로 정립시켰다.

이러한 일반체계이론은 사회과학분야에서 도입되어 사회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정신치료 및 상담분야, 교육학, 가정학 등의 분야에서 1960년대이후 새로운 패라다임이 되어 각 분야의 특성에 맞게 이론과 실제에 응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학에서는 1960년대에 일시적 상승을 경험했지만 1970년대에는 급격히 쇠퇴해 버리고 초기 지지자들이 기대하였던 전망을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조지리처, 1988)<sup>8)</sup>.

체계이론의 일반성과 사변성,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와 측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이론의 장래를 암울하게 보기는 했으나, 경영학, 사회복지, 정신치료와 가족상담 분야에서는 그러한 일반성과 개념의 틀에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체계이론의 난점이었던 ‘특수하고 실질적인, 체계의 특성과 측정 및 평가 응용에 도전함으로써 체계이론의 유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족학연구에서는 ‘가족체계론’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고 그에 따른 가족체계의 일반성과 추상성, 가족규칙의 수준, 가족체계의 특수성과 역동성을 측정하고자 함으로써 가족원 및 가족 자체를 연구하고 응용하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 되고 있다. 이에 가족체계론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해 보면서, 일반체계이론이 가족연구에 접목된 상황의 파악과 연구내용들, 체계이론

6) 이한조, 「경영조직론」(서울: 형설출판사, 1987), pp. 119-120.

7) 올리버 해리스(김성천 편역), 「가족치료」(이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87), pp. 13-46.

8) 조지리처(최재현 역), 「현대사회학이론」(서울: 형설출판사, 1988), pp. 459-515.

의 공헌에 평가를 해 본다.

### Ⅲ. 가족연구에 대한 체계이론

가족학자에게는 1970년대 체계이론은 매우 매력적이었다(Kanter와 Lehr; 1975, Hill; 1972, Straus; 1973, Broderick; 1979)<sup>9)</sup>. 그러나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난점때문에 실망을 하였고, 이론이 과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사변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체계로서 한계성을 갖는다고 보았다(조지리처, 1988). 그런 반면에 꾸준히 가족체계 이론을 구성하고 실제 가족연구와 임상에 적용하면서 80년대는 가족체계이론화가 되는 10년이 되었다. 특히 구체적으로 가족체계를 측정하려는 연구자들<sup>10)</sup>(Eisler; 1988, Goldenberg; 1984, Miller와 Bishop; 1985, Minuchin; 1983, 1984, Olson; 1982, 83, 85, 86, Reiss; 1984)은 가족체계이론의 유용성과 파라다임을 제공해 왔다. 그들 중 Minuchin, Bowen, Olson과 그 동료자들의 많은 연구 내용이 소개되었다.

#### 1. 가족체계의 정의와 특성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스템(General System)의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베르탈란피에 의하면 “체계란 상호작용에 가담하는 요소들의 복합체”라고 하였다. 최근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개념(신유근; 1990, 이한조; 1987)을 사용한다면, “체계란 큰 환경내에서 전체의 목표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분 또는 공통의 부분들이 상호작용하고 상호관련되는 부분들의 집합체”<sup>11)</sup>이다. 따라서 체계의 한 요인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다른 요인도 변화하며, 이런 변화는 원래의 변화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체계는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일 수 있다. 폐쇄체계는 환경과 상호 교류를 하지 않으며 개방체계는 환경과 상호교환을 하며 변화를 지향한다. 그런데 가족은 개방체계라 볼 수 있다. 체계는 대상(Object), 속성(Attributes), 관계(Relationship), 환경(Environment)의 4요소로 구성된다(Little John., 1983). 가족체계에서 대상은 가족원이며, 속성은 가족원 개인의 자질이나 가족 또는 가족원의 일반화된 목표 에너지 긴장 등이 포함되며 한 가족체계의 특수성을 나타낸다. 관계는 가족체계의 부분들사이의 관계이다. 환경도 체계의 구성요인인데 지역사회, 친척, 직업환경, 교육기관, 문화 등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sup>12)</sup> 가족체계는 매크로 환경속에 있으면서 나뉠대로의 하위체계를 갖는다. 즉 부부하위체계, 부모자녀하위체계, 형제자매체계, 삼세대와 관련한 하위체계 등이 있다. 또한 이 하위체계들은 가족원수와 연령, 성별, 역할 등에 따라 상황과 조건에 맞는 대응 변화를 하며 다양하게 변모할 수 있다.

9) Burr & Hill, op. cit., p. 112.

10) 자세한 내용은 저널 등을 참고해야 함.

11) 신유근, 「조직론」(서울: 다산출판사, 1990), pp. 72-76)

12) 브롬멜(서동인 역),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융집성과 변화」(서울:가치, 1988), pp. 44-92.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체계이론의 특성(이학중, 1990, 신유근, 1990, 조지리처, 1988, Brodenck, 1979)이 가족체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용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체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이다. 가족체계는 가족원들사이에 상호관련성을 갖고 상호의존하고 있다. 가족원들은 성, 연령, 역할, 세대에 따라서 상위체계와 하위체계의 여러 위계질서를 갖는다. 따라서 각 하위체계들간에는 경계(Boundary)를 갖고 상황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가족은 가족원들에게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체계이다.<sup>13), 14), 15)</sup>

둘째, 전체성(Wholism)이다. 가족의 전체에 관심을 둔다. 가족원들을 항상 가족전체의 맥락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 분석을 통해서만 체계를 이해할 수 없다. 가족원의 상호관계와 전체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보아야 한다. 물론 개인의 중요성도 인정되지만 이 개인들이 서로 관련되면 개별적인 존재보다 더 큰 힘과 생명력을 갖는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욱 강하다. 전체적인 가족 이미지, 가족 신화, 가족 이념, 가문의 명예 등은 가족 전체의 질과 특성을 반영한다. 개인은 그런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해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sup>16)</sup>

세째, 가족체계의 목표지향성이다. 어느 가족이나 일련의 목표를 유지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원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가족체계의 목적은 가족원들간의 균형화(Equilibrium)을 통하여, 유지되고, 필요한 경우에 가족의 목표를 수정하고 재수립하면서 가족체계는 변모 성장한다. 가족은 상황에 따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동요하는 체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움직이게 한다. 가족은 반드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은 앞의 안정된 상태에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나는 안정상태를 갖게 된다. (Dell, 1982: 1984) 즉 가족체계의 목표와 구조를 너무 경직화시켜 모든 가족원들에게 기존의 틀을 강요할 경우엔 체계에 저항하거나 부적응한 형태로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sup>17)</sup>

네째, 입력과 산출 및 전환과정의 특성이 있다. 가족체계에는 환경으로부터 요구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가족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원들의 과업을 위해서도 다양 입력이 있게 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들과 자극들이 가족체계에 입력됨으로써 가족체계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어떤 종류의 입력 내용과 에너지, 사건들, 자극이 투입되느냐에 따라 가족체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전환과정이 가족체계를 움직이고 그 결과 가족체계의 기능-역기능화 및 가족원의 행동 및 적응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sup>18)</sup>

13) Carifred Broderick,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Conf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The Free Press, 1979), pp. 112-119.

14) 미누친(김종욱 역), 「가족과 가족치료」(서울: 법문사, 1988), pp. 73-90.

15)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서울: 홍익재, 1987), pp. 223-251.

16) 골든버그(장혁표 역), 「가족치료」(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8), p. 110.

17) 브룸벨, 앞 책, pp. 46-47.

18) Carifred Brodenick, op. cit., pp. 112-117.

다섯째, 가족체계의 엔트로피와 개방성이다. 가족체계는 일반적으로 개방체계로 본다(캐슬린, 1986). 만일 가족체계가 내부 및 외부 환경과 상호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폐쇄체계가 되어 엔트로피 상태가 된다. 즉 자기 외부로부터 아무 것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연 소화 부패되는 경향을 띠고 혼란과 무질서의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가족이 개방체계로 작용한다는 것은 투과성을 갖고 환경과 자료, 에너지 정보 등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방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일련의 엔트로피적 변화가 나타나며, 개방성을 조절함으로써 낮은 수준의 엔트로피 상태와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sup>19)</sup>

여섯째, 가족체계의 자기 규제성 및 통제메카니즘이 있다.<sup>20)</sup> 가족체계는 가족의 목표를 추구하고 항상성을 위해서는 일련의 상호작용패턴을 형성하고 가족의 규칙을 갖고 있다. 즉 시간에 걸쳐, 가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자기 규제성을 갖는다. 그런데, 가족은 매 상황마다 매년마다 한 가지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요구에 통제 메카니즘의 신속한 변형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기존의 가족체계의 유지와 자기 규제성을 강력히 작용시킬 때는 주로 네가티브 피드백을 사용하여 체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만일 요구와 상황에 따라서 가족규칙과 가족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족체계를 창조하고 성장시키려고 한다면 포지티브 피드백의 메카니즘을 사용한다. 그런데 가족의 내적 구조가 대처를 못하거나 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혁신적인 규칙을 창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처하는 기제를 우리는 형태전환적(morphogenesis)이라고 한다.

일곱째, 가족체계는 위계 질서를 갖는다.<sup>21)</sup> 개인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하위체계를 형성하고 위계를 갖고 있다. 가족체계의 복잡성은 가족의 기능화에 기여하는 하위체계에 의하여 나타난다. 보통 가족체계의 위계는 가족의 규칙에서 나타나며 이런 규칙들도 규칙의 위계들(sub-rules, sub-sub rules)을 갖고 있다. 실제 가족체계의 위계 질서와 수준을 도표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티어, 미누친 등이 사용하는 가족도표(family map), 가족연대표(genogram), 연합관계 가족구조의 도식화 등은 가족체계의 위계 질서를 표현한다. 그런 가족체계의 위계 질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원 간의 관계 양상의 변모를 나타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도 고착화된 가족구조의 위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가족체계의 위계 질서를 찾아봄으로써 가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덟째, 가족체계는 기능분화의 특성이 있다.<sup>22)</sup> 즉 가족체계가 체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의 분화가 잘 되어야 하고 이렇게 분화된 기능의 인식과 차이를 서로 받아 들이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Bowen은 가족의 분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를 가족자아의 미분화라고 말한다. 개인의 자아가 가족자아 덩어리에 엉기어 제대로 기능화를 하지 못할 때는 관계체계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거나 불안의 정도가 높아지고 만성적으로 되면 병적 증상, 역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본다.

19) 브룸멜, 앞책, pp. 55-56.

20) 전계서, pp. 48-50.

21) 전계서, pp. 57-60.

22) 송정자, 앞의 책, pp. 121-126.

아홉째, 가족체계는 등결과성(Equifinality)을 갖는다.<sup>23)</sup> 개방적이고 적응적인 가족체계는 등결과성을 나타낸다. 등결과성이란 유사한 궁극적인 목표, 상태를 다른 방식과 다른 대안들을 사용하더라도 성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만족스런 가족생활을 성취하는데도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정서적 지지를 통하여, 어떤 경우엔 경제적 해결, 친밀감의 형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수 이상으로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 2. 가족체계모델.

본절에서는 가족치료자들이나 가족문제를 주로 연구했던 Bowen, Minuchin, Kantor, L. Constantine, Olson의 동료 등의 가족체계모델을 살펴본다.

### (1) Bowen의 가족체계론

가족원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특성에 한정시키지 않고 개인과 상호작용하는 가족체계에 초점을 두고 치료단위는 가족이 된다. Bowen은 사회심리적,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정서적 역기능과 체계이론을 접목하여 정서 의사소통 체계 중심적 개념을 발표했다. 즉 “가족은 일련의 상호관련된 체계와 하위체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총체로서 정서관리체계”라고 본다. 가족문제는 가족원들의 지적 체계와 정서 체계가 분화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이런 가족은 미분화된 가족자아군(Undifferentiated Family Ego Mass)라고 하였다. 지적·정서적체계의 분화정도가 높아지면 긴장에 잘 대처하며 생활과정이 질서있고 성공적이고, 미분화된 경우엔 정서체계가 지적 체계를 지배하여 쉽게 감정에 의존하여 쉽게 압력을 받고, 적응력이 없으며 융통성이 없어 일상생활의 문제를 일으킨다. 분화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에는 자아분화척도<sup>24)</sup>가 있다. 개인의 이러한 지적-정서적 체계와 가족체계상의 수준, 연합관계, 부부의 정서관계와 체계, 가족간의 삼각관계, 형제체계, 정서적 차단(Emotional Cut off), 개인간, 세대간, 부모-자녀간의 감정의 밀착도와 고립화 현상, 3세대를 통한 가족의 투사과정, 가족의 역사성, 다세대간의 전달과정 사회(환경)과의 관련성의 복합적인 체계론적 역동성을 언급한다. 따라서 개인의 정서·지적분화를 통한 성숙한 인격은 결국 세대를 걸쳐서 유전·투사될 수 있는 것이며 가족체계의 다양한 수준과 감정·지적 자아체계가 적절히 분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체계이론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3) 브룸멜, 앞의 책, p. 56.

24) 정서적 지적 기능의 분화정도의 0~25점의 최하수준은 가족및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용해되어 자기 감정에 지배된다. 25~50점의 수준은 목표지향적인 행동은 하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동하므로 타인의 정서체계에 의해 유도된다. 50~75점의 수준은 스트레스가 발생해도 감정에 지배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고가 발달되고 자아의식이 있으나 가끔씩 혼돈을 일으킨다. 75~100의 수준은 드물기는 하나 감정과 사고가 완전히 분리된다.

## (2) Minuchin의 가족체계론

Minuchin은 가족을 가족내에 존재하는 하위체계를 중심으로 기능하는 체계로 본다. 가족원은 체계의 성분(대상)이 되며, 가족원은 필요에 따라 연합하면 가족원의 수, 성별, 세대에 따라 다양한 하위체계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가족원은 가족체계의 상호작용패턴과 가족규칙에 의해 통제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다. 각 하위체계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으며 서로 관련되어 상호작용한다. 그는 가족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체계간의 경계선이 무엇보다 명확해야 하며 경계의 명확성과 함께 체계가 유지될 정도의 정의된 위계질서와 권력의 분배, 부모가 부여한 가족규칙과 부모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경계선의 유형은 명확한 경계(Clear Boundary), 혼돈된 경계(Diffused Boundary), 경직된 경계(Rigid Boundary)로 나누며 이에 따라 가족유형도 나뉘어 진다. 즉 명확한 경계의 가족은 정상 기능 가족으로, 가족체계, 성원간에 질서있고 정확한 상호작용을 하고, 각 하위체계들은 외부의 지원없이도 자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며 다른 체계들과도 상호의존·상호작용을 계속한다. 혼돈된 경계 가족은 가족체계의 규칙이 애매하며, 지나치게 가족원이 서로에게 관여하고 뒤엉켜서 개인의 경계를 지나치게 침범한다. 이런 가정은 속박된 가정(Enmeshed family)라고 한다.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은 경계가 너무 지나치게 굳어서 가족원간, 체계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으며 자율·유지적 기능은 있으나 왜곡된 독립심이 있고, 소속감, 상호의존과 도움 요청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가정을 유리된 가족(Disengaged family)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속박가정에서는 정신신체적 증상을 가진 가족원이 있기 쉽고, 유리된 가족에서는 사회비행이 있는 가족원이 있기 쉽다. Minuchin은 가족 하위체계들의 연합과 동맹관계 경계선, 동맹과 관련되는 권력유형과 가족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 가족전체체계를 진단하고 평가해 봄으로써 가족치료및 문제해결에 대한 전체론적 관점을 제공했고 중요한 이론모델을 구성했다.

## (3) Olson, etal의 Circumplex모델

Olson과 그의 동료들은(1979, 1982, 1986, 1989) 체계이론을 가족에 적용하여 Circumplex모델(이하 C. M이라 함)을 개발했다. 중심 개념은 가족의 결속력(Cohesion), 적응력(Adaptation), 의사소통으로써 가족체계를 진단한다. C. M에 의하면 정상가족이란 적당한 수준의 연결과 분리가 있어야 하며(적정수준의 상호작용과 결속력), 변화가 요청될 때는 적절한 적응력과, 의사소통체계가 분명하고 자기표현과 감정이 명확하게 오가야 한다. 중심개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결속력<sup>25)</sup>: 가족원이 가족내의 다른 체계 또는 성원들과 분리 또는 연결되어 있는 정도이다. 즉 가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이런 결속력은, 가족원간의 정서유대, 가족의 외부환경, 하위체계들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와 대상,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공간과

25) Dell(1982)의 경우는 가족체계에 항상성(Homeostasis)개념을 쓸 경우엔 너무 약점이 많으므로 결속력(Cohesion)개념이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즉 가족항상성은 가족체계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가족원의 변화를 방해하고 피이드백개념은 체계를 규제함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우선 반영하므로 가족치료와 가족측정을 위해서는 결속력개념이 낫다는 주장을 함.



개인이 사적 공간의 허용정도,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활동 보장 정도로 측정된다.<sup>26)</sup> 연결정도에 따라서 과잉분리(Disen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ted), 밀착(Enmeshed)으로 나눈다. 가족의 기능화(family functioning)와 가족결속력과는 곡선적 관계를 갖는다. 결속력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역기능적이고 너무 낮으면 서로에게 무관심함으로써 역기능적이 된다. 적절한 결속력만이 가족의 정상성을 갖고 온다.

② 가족의 적응력: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관계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 역할, 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서 가족원들이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측정은 가족원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쉽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협상스타일, 역할관계와 분담, 가족규칙의 융통성을 통하여 4수준으로 분류한다. 적응력 정도에 따라 경직(Rigid), 구조적(Structured), 융통적(flexible), 혼란(chaotic)으로 나누며 가족 적응력과 가족기능화의 관계도 곡선적이다.<sup>27)</sup>

③ 가족의 의사소통: 가족의사소통은 그들의 욕구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가족의 역할이나 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제이다. 이것은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을 돕는 촉매 역할을 한다. 긍정적 의사소통유형은 명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 지지적인 대화, 효과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갖는다. 부정적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 부정적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갖는다.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체계유형을 16가지로 분류했다. (그림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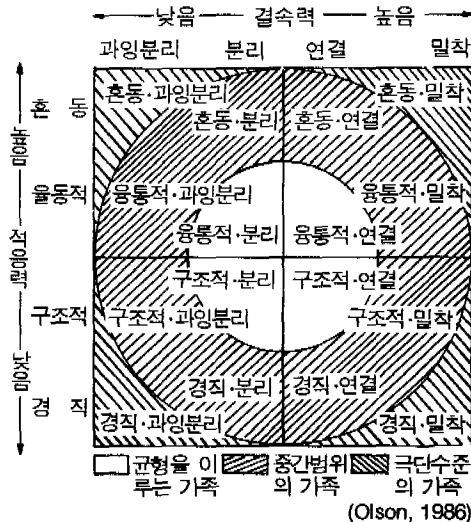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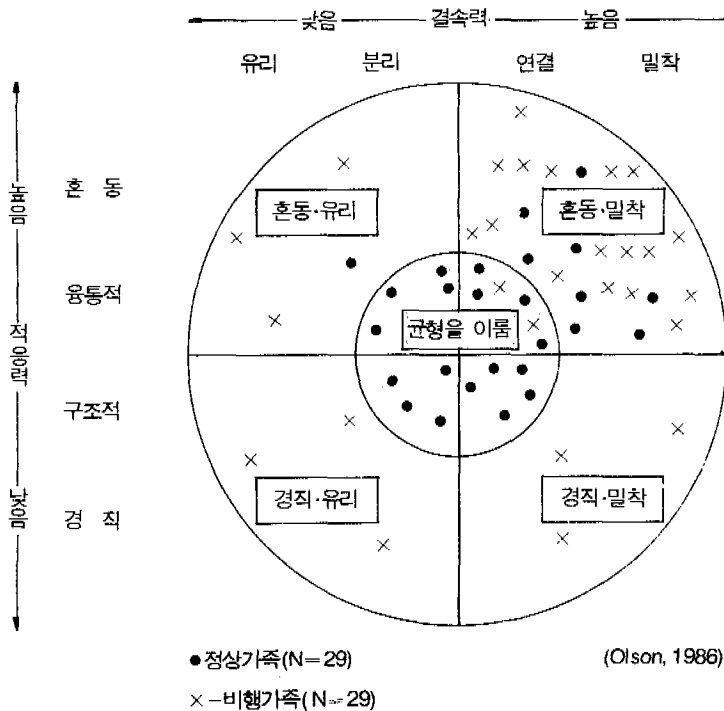


그림 1 Circumplex Model의 16가지 가족체계유형 (1986)

- 26) 위 8가지 하위변인 정도의 측정을 통해 가족결속력(또는 융집성)을 4수준으로 분류하며 실제 표준화 작업을 했다.
- 27) Beavers와 Voeller(1983)은 가족적응력과 가족의 기능화는 직선적으로 보는데 낮다고 주장한다. 적응력은 하나의 성장능력이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화는 잘된다는 것이다. S. Anderson(1986)은 C. M의 가설집중결과 가족적응력은 곡선적 관계이며 특히 의사소통의 명확성과 표현도와 관계에서 곡선관계가 훨씬 예측력이 높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타당성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균형된 가족은 가족결속력과 적응력이 중간수준에 속하며 적절한 분리와 연결적질한 융통성과 구조적 수준에 위치한다. 중간범위 가족은 두 차원 중 하나가 극단 수준이고, 극단수준의 가족은 양쪽 모두가 양극에 위치하는 가족이다. Olson (1986)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가족은 비행청소년 가족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족이 많았고, 일상가족과 비일상가족의 연구 (Portner, Kollonin, Clark)에서도 일반가족이 역기능가족보다 균형가족에 더 많았다. (그림2 참고)



(4) Kantor & Lehr의 체계론

Kantor & Lehr (1973)는 「Inside the Family」에서 가족체계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28) 첫째, 가족은 세 측면의 하위체계 조직망인데, 가족단위 하위체계, 개인간 하위체계 (interpersonal), 개인하위체계 (personal)이다. 그들은 상호관련되며 바깥 환경으로 는 사회-공간으로 열려있고 그들간에는 정보기타 중요한 교환이 일어난다.

둘째, 가족의 접근차원으로 가족이나 가족원들이 가족생활과정에서 획득해야 하는 자원으로 에너지, 시간, 공간이 그 요인이다. 시간과 공간의 사용 및 점유형태는 가족체계를 분류하는 좋은 지침이 되며, 에너지는 가족체계의 배터리로서 가족 일상에서 교환과정과 흐름이 있게된다. 셋째, 가족 목표의 차원으로 각 하위체계가 가치롭다고 생각되는 최종점이다. 주로 애정, 권력, 의미요인에서 해석된다. 넷째, 가족체계의 유형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결속에 따라 폐쇄형, 개방형, 혼돈형으로

28) D. H. J. Morgan,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5), pp. 132-158.

나눈다. 그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1과 같다.

〈표 1〉

type	space	time	energy
closed	fixed (고정)	regular (규칙)	steady (꾸준함)
open	movable (유동적)	variable (다양)	flexible (융통적)
random	dispersed (분산된)	irregular (불규칙)	fluctuating (유동적)

(Morgan, 1985)

다섯째, 가족생활사의 심리·정치적 (psycho-political) 면이다. 가족체계와 가족원에게서 역할이 있어서 그에 따라 움직이고 체계의 조정이 일어난다. 각 역할자 (player)는 주도자 (mover), 추종자 (follower), 반대자 (opposer), 방관자 (bystander)가 있어서 가족원, 가족하위체계간에 누가 그 역할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계의 역동성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Kantor와 Lehr는 “가족체계는 다른 사회체계와 같이, 복잡하고 개방되어 있고, 적응적이고 정보처리체계의 특성이 있다”고 보면서 피이백을 과정 (process)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가족은 유기체와 같이 내부의존적 인과관계를 갖고 경계가 있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다.

(5) L. Constantine의 가족체계모델<sup>29)</sup>

일반적으로 가족을 개방체계로 보고 있는데 (Kantor & Lehr, 1975), 개방체계의 특징은 의사소통과 역할구조, 경계의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진실하며 방어적이지 않으며 융이하다. 역할구조는 권력이 다소 정리된 민주형이고 융통성이 있고, 경계는 잘 분화되고 서로에게 부여된 정도로서 상호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Olson의 모델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L. Constantine (1983)은 지금까지 가족체계 모델을 분석하고 통합과정모델을 제시했다. Kantor와 Lehr는 개인행동 4차원의 전체성과 가족의 목표와 속성을 고려하여 가족체계를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폐쇄형, 개방형, 혼돈형, 동시형 유형 (regine)으로 나누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그림 3으로 표현된다.

29) L. Constantine, “Dyfunction and Failure In open Family System”, Journal of Mantal and Family therapy, Vol. 10(No. 1, 1984), pp. 1-18.

30) regime을 the form of communication feedback regulating systemic process라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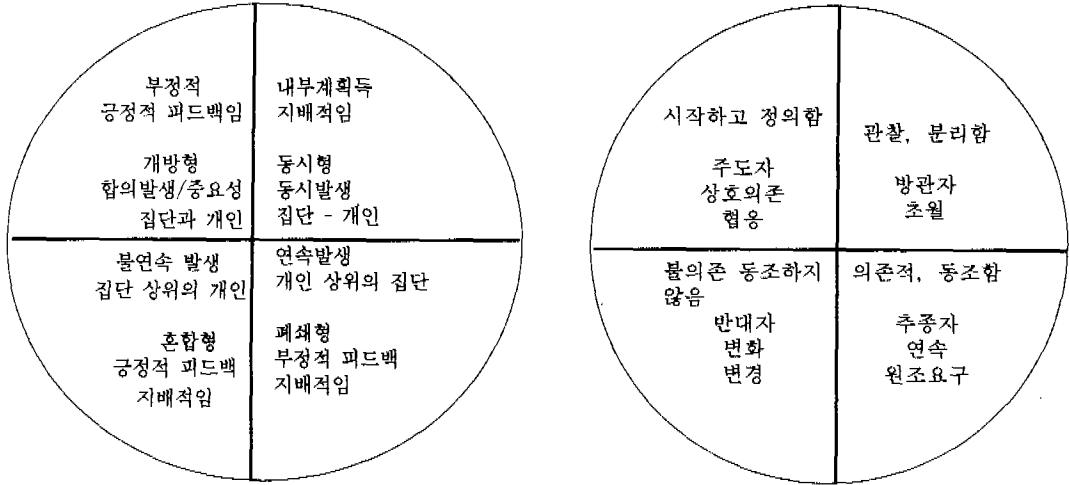


그림 3. Interrelated "maps" of individual and systemic behavior

4개의 가족체계의 중요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4개의 가족체계의 중요 특징

	폐쇄형	혼합형	개방형	동시형
피드백의 규칙성	일탈이 약함 (부정적)	일탈이 강함 (긍정적)	부정, 긍정적인 양면성	둘다아님 (규칙적인 "계획")
우선권	과거를 통한 미래	불연속성 현재시간의 중요	동시에 중요함 (연속과 불연속의 통합)	일치함(연속과 불연속성 둘다아님)
체계적잇점	단체	개인	단체와 개인	"충돌이 없다"
개인적잇점	안정성, 자원의 축적	다양성 혁신	적응, 유효성(효과적)	조화, 평온
문제해결력	안전감 소속감	주체적, 문화, 독특함	자기실현감완성 효율성	평화, 통합감
문제해결력	전통적인 위계질서 이용	무질서적-창의적 발전적	합의-통합, 균형의 과정	자동적, 계획이되어 갈등으로부터 자유
의사소통	보수적 빠르다	불규칙적	자유롭고 가치중심	최소한의 의사소통
정보	규칙적, 체널화 통제되어 있다 부정적	손실될 수 있다 무시적	충분한 정보	무관계

따라서 문제가족이란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해결해야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족체계의 특성이 과장되거나 확대되어 점차 무능력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개방형은 점차 속박되어지고 혼란된 속박의 특징을 갖는다. 계속 자원이 부적당하면 가족은 혼돈되고 분리된 지경에 이른다. 중요한 점은 개방체계만이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하는(healthy functioniny) 체계가 아니다. 모든 가족체계는 개인과 가족의 욕구를 분배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있는 가족이

될 가능성은 다른 체계유형보다는 개방형일때 확률이 높고, 이것은 Olson의 모델에서 언급된 균형된 가족체계와 일관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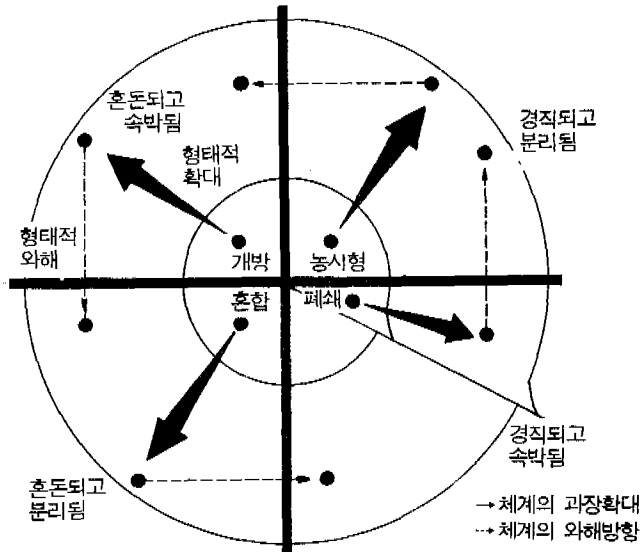


그림 4. Typical exaggeration and Collaps of system. (체계의 확대와 와해)

#### IV. 가족연구에의 응용

가족체계론은 가족현상을 접근하는 전체론적 관점으로써 의의가 있지만, 현재 응용을 시도한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선택<sup>31)</sup>

가족체계의 기초형성과정의 출발점으로서 배우자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남녀가 어떻게 만나 상호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미래의 가족체계와 부부체계는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한쌍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단위보다 상호작용이 높게되는 면, 둘째, 어떻게 경계를 형성하는가, 셋째, 일관성 있는 규칙과 위계 질서를 형성하는 변환의 규칙과 구조는 어떠한가에 관심을 갖는다. Homans는 서로의 학교, 직장, 이웃, 동료 등의 외적 체계와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긍정적 감정이 높을 수 있으며, Katz와 Hill(1958), Udry(1974) 등에 의하면 가까운 이웃, 고향, 학교 직장 등 거리가 근접하여 접촉이 가능할수록 상호작용이 높다고 했다. 또한 Adams(1980)의 배우자선택모델에서 신체적 매력, 가치있는 행동, 유사한 흥미가 기본적인 매력을 좌우하지만 부모와의 관계, 부모하위체계로부터의 반대, 지지, 출생순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의 작용에 따라 그들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 경계 형성은 데이팅 기간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단순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규칙과 전환을 사용함으로써 체

31) Carlfred Brodenick, op. cit. pp, 124-125.

계 형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Broderick, 1979). 두사람의 내적 구조의 형성은 서로의 행동, 서로의 목적 추구가 형태발생적(morphogenetic)인 과정을 통해 발전하며 결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피이드백을 개인간, 각자의 가족체계간에 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2) 부모자녀관계와 교육

아동·청소년의 정신신체적 증상(Minuchin; 1986, Lynn, Walker; 1988), 자폐아동(Sandra; 1984), 아동정신장애(Ellen, 1997), 비행청소년, 정신장애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가족체계간의 차이점(Olson; 1985),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부부체계 교육의 효과(T.R. Winanas, 1984) 등 부모하위체계, 가족체계의 특성에 따라 아동 및 자녀의 발달과 문제(증상)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순환체계를 갖고 있음을 설명한다. 천식, 당뇨병, 신경성 식욕부진증, 식욕 과다증의 경우(Minuchin; 1978, Laura Lynn; 1988) 병의 원인이 신체적일지라도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증상이다. 보통 이런 가정은 가족체계가 속박적이며, 가족의 각 하위체계가 제대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계가 약하며 자주성이 없다. 정신신체적인 가족은 자녀의 과잉보호 경향이 많은데, 자녀의 이런 문제(증상)는 바로 가족체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자녀는 곧 가족문제로 규명되고 가정의 근심 주제이며, 가족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하위체계, 예를 들면 부부체계, 다른 형제간의 체계간의 갈등은 무시된다. 이 자녀가 가족 갈등의 제거자 역할을 한다. 비행 자녀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유리된 가족, 또는 속박과 유리가 번갈아 일어나는 가족이다. 가족체계는 지나치게 자주적이거나 경직되어 있고 상호의존성이 없고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가정의 보호기능이 마비되고 무관심함으로써 자녀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를 연구할 때는 가족의 각 하위체계들의 역동성과 연합, 권력, 소외관계, 가족체계의 유형을 파악해봄으로써 체계론적 이해가 된다. 또한 부모교육프로그램에(winans, 1984) 부부하위체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삽입하였을때 부부만족도와 부모기술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양육태도는 바로 가족체계의 유형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 (3) 가정폭력

Straus(1973)는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문제를 체계이론으로 설명했다. 즉 가정폭력은 개인의 정신병리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체계내에 이미 존재하는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체계의 산물 또는 결과이다. 가족체계는 폭력이 점차 상승하도록 악순환을 창조하는 피이드백(positive feedback)을 사용하거나 폭력수준의 유지 및 만성화를 자초하는 피이드백(주로 negative feedback 사용)을 포함한다. Olson(1983)의 가족체계모형으로 보았을 때 가족이 경직되고 속박가정일수록 만성적인 폭력이 있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의사소통체계와도 관련되어 가족체계가 서로에게 지지하는 의사소통유형, 평등한 권력공유, 성공적인 타협술, 피이드백의 자유로운 조절, 역할공

유, 가족규칙의 자유로운 조정이 있을수록 가족이 잘 기능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 역기능적이 되어 폭력의 빈도가 높았다(Steinmetz, 1987). Rapoport등은 부부의 적대감과 체계의 조건에 따라 적대감수준의 비율이 결정되는 공식을 만들었다(Broderick, 1979). 즉 서로에게 적대감과 양은, 시간에 따른 적대감으로서 서로에게 느끼는 적대감 정도와 자신이 화를 냄으로써 손해보는 비용, 전에 쌓였던 불만과 고마웠던 점이 고려되어 산출된다. 처음에 개입되었던 투입량, 관계의 역사, 비용, 두 사람간의 체계상태 등이 고려되어 분노와 적대감이 결정된다.

또한 폭력의 사회학습론에서는 세대를 통한 폭력의 전수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가족체계론에서 확대가족, 부모-자녀체계에서 행동 및 정서체계의 전수과정으로 설명된다. Bowen의 삼세대가설, Gelles와 Maynard(1987)의 가족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세대 전수를 통한 폭력의 악순환 체계, 부부하위체계의 문제와 평가, 사회구조적 스트레스, 소외, 성격장애, 사회계층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폭력은 일방적이 아니며 가족관계 및 가족체계와 피이드백을 통하여 순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대체로 가족체계가 역기능적이며 가족의 균형이 깨어지는 계기(예를 들어 남편의 실직, 부인의 재취업, 외도)가 있고, 가족하위체계의 경계가 경직되며, 권력투쟁과 연합, 전수된 폭력 등이 역동적으로 작용하면서 폭력화가 나타난다. 이때에는 가족체계의 측정과 평가를 통해 가족체계의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체계의 재구조화와 창조적인 처치 및 상담을 하여 문제 해결을 한다.

#### (4) 가족생활 상담 및 치료

체계이론이 검증되고 현재 적용 실현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가족생활 상담 및 치료분야이다.<sup>32)</sup> 또한 가족복지의 임상차원과 가족케이스워크에서 체계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체계론적 접근을 할 경우엔, 문제를 가진 가족원은 가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절과정의 결과이거나 가족체계의 희생양, 또는 헌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문제를 치료할지라도 개인에게 영향을 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원에 접근할 수 없다. 보통 상담이나 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증세나 문제가 더 이상 가족체계를 유지시키거나 공헌할 수 없을 때(가족의 무능력상태, 새로운 변화의 요청, 재적응의 부담)가 되면 가족의 위기 상태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상담하게 된다(Philippe, 1982).

## V. 체계이론의 공헌 및 평가

체계이론은 현대의 과학적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재조직을 하게 하였고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공한 점에서, 예찬을 받았음(C. Broderick, 1979)에도 불구하고 체계이론의 일반성과 보편성,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는 여러 이유와 약점이 많고 이론적 가치가 없다고 혹평도 받았다(조지리처, 1988). 체계론적 접근의 중요한 초점은 다른 이론처럼 일련의 법칙이나 자명한 원리, 명제를 찾아 세우는 것보다 하나의 사고방

32) 체계이론의 측정과 평가가 구현되고 있으므로 가족체계현상의 실증적 자료가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다.

식(a way of thinking)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이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 (1) 전체주의적 의식(wholism)을 갖고 단위로서(unit) 접근하게 된다.
- (2) 하나의 사물, 사건, 행동, 문제에 관한 용어보다는 관계적 용어(relations)를 생각하게 하며 상호관련성을 고려한다.
- (3) 종합적인 세계(synthesizing)로 이끌어 준다.
- (4) 피이드백, 전환과정의 역동성을 추적하고 이에 대한 정보전달체계, 의사소통체계에 관심을 갖는다.
- (5) 각 하위부분들과 상위체계와의 그룹화 및 수준의 분류, 통합을 통해 구체성에서 추상성 보편성을 찾게 한다.
- (6) 각 하위부분들과 전체 체계와의 책임, 전환, 역할의 명확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7) 체계와 더 큰 외부환경, 조직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 및 역동성을 고려한다.
- (8) 모델형성, 도식화(mapping)가 가능하다. 그런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 (1)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 있다.
  - (2) 체계에 관련되는 복잡한 요인들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술하기가 어려우며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기가 어렵다.
  - (3)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모하는 체계의 규칙과 원인을 찾기가 어렵다.
  - (4)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 있다.
  - (5) 전체론적 관점때문에 하위 요인들의 특성이 무시되기 쉽다.
  - (6)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 (7) 체계의 현상유지와 권위주의적 경향을 가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체계이론은 체계의 목표설정과 체계의 기능화, 투입되는 각종 자원(정보 포함)과 요구들 외적 사건과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를 고려한 관리체계, 변동체계, 체계의 촉진매개체인 커뮤니케이션, 각종 매개물, 전환의 규칙과 방향성, 수준의 각 하위체계의 특성과 규칙, 권력과 역할, 애정의 역동성, 그에 따른 체계의 메카니즘과 산출 결과, 다시 순환하는 체계에 대한 제반 사항이 고려된 이론체계이다. 사회현상과 거대한 정치·경제 조직을 분석하는 틀로는 아직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목표의 달성, 심적평가 등의 조직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신유근, 1989)에서는 하나의 체계이론으로 구축되었으며 중범위이론을 도입하여 상황이론화를 세부이론의 검증, 시스템분석의 계량화, 하위체계와 전체체계와의 수준, 문제의 인지, 관련·복수변인분별, 다양한 부분들의 분석과 통합, 최적해(fitness)의 결정, 질적인 문제해결에로 응용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신유근; 1990, 이학중; 1990)

따라서 가족을 체계로서 이해하고 가족현상을 접근한다면 많은 장점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가족체계의 측정과 연구 방법의 세련화를 통한 작업이 계속 되어야 가족연구의 유용한 이론으로 구축될 것이다.

가족현상에 대해 체계론적 접근을 함으로써 유용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본다. 첫째, 가족은 비교적 소규모의 개인들로 이루어졌고 시간의 경과(세대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계의 수준이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



은 점이다. 둘째, 개인의 하위체계, 개인간, 가족의 각 하위체계, 가족-환경체계에 대한 진단의 특성 파악, 과정의 이해, 규칙의 변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관찰 측정할 수 있는 점, 셋째, 개인의 행동과 의식의 순서와 전환, 대인간, 가족체계간의 원리가 비교적 추적하기가 가능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점이다. 현대 과학의 발달로 비디오 관찰과 분석, 컴퓨터그래픽과 도구의 개발은 가족체계의 진단과 측정을 용이하게 한다. 넷째, 가족의 역사성 (family history)에 대한 개입방법과 해석방법, 시간요인을 고려한 체계의 변동과 발달과정을 추적하도록 개념화하는 노력이 포함된다. 다섯째, 가족케이스연구와 가족임상에서 실제 체계론적 접근이 성공하고 있고, 가족체계의 측정과 이론화에 관심을 갖고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체계 이론이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역동성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가족현상 및 가족문제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지 검증 가능한 변수들과 명제를 찾아가는 과학적 측정작업이 꾸준히 실행되어야 현대가족 이론의 중요한 위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미누친(저), 김 종옥(역), 가족과 가족치료, 범문사, 구조적 가족치료의 실제, 범문사, 1988.
2. 배 은경, 가족치료의 체계론적 접근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3. 서 동인 외 2인(역), 브룸멜(저), 가족관계와 의사소통-융집성과 변화-, 까치출판사, pp. 44-92, 1988.
4. 서울올림픽 학술회의, 후기 산업사회의 공동체 제1권(가족), 우석출판사, 1989.
5. 성 문선 외(역), 버지니아 사티어(저),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흥 익제, 1989.
6. 올리버 해리스, 거티스 잔첸(김 성천 편역), 가족치료, 원광대학교 출판부, pp. 13-46, 1987.
7. 유 순덕, Circumplex Model에 의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87.
8. 이 학종, 조직행동론, 세경사, pp. 38-60, 1990.
9. 신 유근, 조직론, 다산출판사, pp. 71-98, 1990.
10. 이 한조, 경영조직론, 형설출판사, pp. 115-175, 1987.
11. 장 혁표 외 2인(역), Irene Goldenberg, Herbert Goldenberg, 가족치료, 중앙적성출판사, pp. 16-100, 1988.
12. 조 은, 가족사회학의 새로운 연구동향과 이론적 쟁점, 한국사회학 20(여름호), pp. 103-115, 1986.
13. 최 재현(역), 조리-리처(저), 현대사회학 이론, 형설출판사, pp. 459-515, 1988.

14. Barry L. Duncan, M. Bernadine Parks, Integrating Individual and Systems Approaches: Strategic-Behavioral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4(2), pp. 151-161, 1988.
15. Carifred Broderick and James Smith,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The FRESS PRESS, pp. 112-129, 1979.
16. D.H. Olsonetal,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17. David H. Olson, PH.D., Circumplex Model VII: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Vol. 25, pp. 337-358, 1986.
18. E. Millis Duvall, Brent C. Miller,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Inc., pp. 14-16, 1985.
19. H.J. Morgan, *The Family, Politics and Social Theory*, Routledge & Kegan Paul plc. pp. 132-158, 1985.
20. Larry L. Constantine, Dysfunction and Failure In Open Family Systems: In Clinic At Issu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pp. 1-16, 1984.
21. Ellen, F. Wachtel, Family Systems and The Individual Child,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3(1), pp. 15-25, 1987.
22. F. Ivan Nyc, Felix M. Berado,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Anaysis, pp. 13-27, 1981.
23. Guillermo Bernal, Eduardo Ysern, FAMILY THERAPY AND IDEOLOG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2(2), pp. 129-135, 1986.
24. Haroldd, Grotevant, Cindyl. Carlson, Family Interaction Coding Systems: A Descriptive Review, *Family Process*, Vol. 26, pp. 49-70, 1987.
25. Ivon Eisler, Christopher Dare, George I. Szmukler, What's Happened To Family Interaction Research? An Historical Account and A Family Systems Viewpoint,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4(1), pp. 45-65, 1988.
26. Ivan W. Miller, Nathan B. Epstein, Duanes S. Bishop, Gabor I. Keitner,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1(4), pp. 345-356, 1985.
27. James H. Bray, Donald S. Williamson, Paul E. Malone, Personal Authority In The Family System: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personal Author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Process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2), pp. 167-178, 1984.
28. James, Griffith, M.D., The Family Systems of Munchausen Syndrome by Proxy, *Family Process*, Vol. 27, pp. 423-430, 1988.
29. Jeria. Doanc, Ph.D, W. Leonard Hill, JR., A.C.S.W., Nadine Kaslow, Ph. D., Donald Quinlan Ph.D., *Family System Functioning: Behavior in the*

- raboratory and the Family Treatment Setting, *Family Process*, Vol. 27, pp. 213-243, 1988.
30. Kreppner & Lerner(ed), *Family Systems in a life-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Ellawn), pp. 165-195, 1989.
  31. Laura Lynn Humphrey, Steven Stern, Object Relations and The Family Systems in Bulimia: A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4(4), pp. 337-350, 1988.
  32. Lynns, Walker, Ph. D.F. Josephmclaughlim, Ph. D. John W. Greene, M. D., Functional Illness and Family Functioning: A Comparison of Healthy and Somaticizing Adolescents, *Family process*, Vol. 27, pp. 317-324, 1988.
  33. Michael, E Kerr., Family System theory and therapy Handbook of family therapy(Ed), BRUNNER IMAZEL, INC. (N,Y.), pp. 226-264.
  34. Michael G. Sawyer, Aspasia Sarris, Peter A. Baghurst, Family Assessment Device: Reports From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In Community and Clinic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4(3), pp. 287-296, 1988.
  35. Nathan B. Epstein, Lawrence M. Baldwin, Duane S. Bishop,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ru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 Vol. 9(2), pp. 171-180, 1988.
  36. Paul F. Dell, Why Family Therapy Should Go Beyond Homeostasis: A Kuhnian Reply To Ariel, Carel and Tyano, *Jou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4), pp. 351-356, 1984.
  37. Paul R. Falzer, Ph.D., The Cybernetic Metaphor: A Critical Examination of Ecosystemic Epistemology as a Foundation of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Vol. 25, pp. 353-363, 1984.
  38. Philipe Caille, The Evaluation Phase of Systemic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pp. 29-39, 1982.
  39. Ramona Marotz-Baden and Peggy Lester Colvin, Coping Strategies: A Rural-Urban Comparison, *Family Relations*, pp. 281-288, 1986.
  40. Richard H. Fulmer, A Structural Approach to Unresolved Mourning In Single Parent Family System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9(3), pp. 259-269, 1983.
  41. Richard J. Gelles and Peter E. Maynard, A Structural Family Systems Approach to intervention in Cases of Family Violence, *Family Relations*, pp. 270-275, 1987.
  42. Robert Jay Green, Koren E. Saeger, Learning to "Think Systems": Five Writting Assignm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pay*, pp. 285-308, 1982.

43. Sandra L. Harris, *Intervention Planning For The Family Of The Autistic Child: A Multilevel Assessment Of The Family System*,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2), pp. 157-166, 1984.
44. Sholmo Ariel, Cynthia A. Carel, Samuel Tyano, *A Formal Exoplica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Homeostasi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4), pp. 337-349, 1984.
45. Shlomo Ariel, Cynthia A. Carel, Samuel Tyano, *Why Family Therapy Should Be Both Homeostatic and Coherent: A Kuhnian Reply To Dell*,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4), pp. 357-359, 1984.
46. Stephen A. Anderson, *Cohesion, Adaptability and Communication: A Test of an Olson Circumplex Mode Hypothesis*, *Family Relations*, pp. 289-293, 1986.
47. Suzanne K. Steinmetz,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Ed), Plenum Press, (New York), pp. 748, 1987.
48. T. Revillon Winans, Philip G. Cooker,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On The Marital Dyad: An Examination of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0(4), pp. 423-425, 1984.